

## 시사저널 창간 15주년 기념 특별기고

시사저널 창간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시대정신을 이끌어 가는 불편부당한 논조로 우리 사회의 지성을 대변해 온 독립언론 시사저널에 글을 쓰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인도와 베트남을 방문하고, ASEM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를 순방했습니다.

저는 순방을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의 조언을 듣고 관련 서적, CD,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나라와의 긴밀한 협력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인도·브라질 등 이른바 브릭스(BRICs) 국가들과의 협력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신흥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브릭스 국가들은 자원과 인구, 성장속도 등 여러 면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세계 최대의 시장이 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더욱이 이들 나라는 우리와의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감안할 때 매우 효과적인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첨단 IT 기반과 제조기술을 토대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분야가 매우 많습니다. 자원개발, 정보통신, 대형 건설사업 등이 그 대표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시베리아 자원개발에 관해서 나와 푸틴 대통령은 같은 제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시베리아의 자원개발에 한국의 자본과 기술참여를 요청했고, 우리도 장기적으로 석유·가스 등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서로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인도 역시 직접 가서 보니 협력의 가능성과 폭이 훨씬 넓었습니다. 인도는 2012년까지 대대적인 인프라 건설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IT 분야에서도 우리의 하드웨어가 인도의 소프트웨어 인력과 손잡을 때 제3의 시장에 공동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컸습니다. 양국 정상은 자연스럽게 이들 분야에 대한 양국의 협력 확대에 공감했습니다.

저는 방문국 정상들과의 대화와 현지 경제인과의 만남에서 실질적인 협력사업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다지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인도와 합의한 여러 사업들이 결실을 맺으면 앞으로 4~5년 안에 현재 각기 40억 달러 안팎인 교역량이 각각 두 배 이상 늘어난 100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입니다.

중국은 이미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438억 달러를 넘어 미국·일본을 제치고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 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열린 ASEM 기간 중에 저는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만나 양국간 교역량을 향후 5년 안에 1천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음달 브라질 방문 역시 남미와의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마침 시사저널에서 심층보도하고 있는 브릭스 특집 가운데 브라질 편은 브라질 방문에 대비해 참고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순방의 후속조치들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유전 공동개발, 가스 도입 등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국가전략을 수립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에너지 분야 장관과 전문가가 망라된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을 점검하고, 자원개발 전문기업 육성방안, 해외 유전 및 가스전 확보대책, 러시아 등 방문국과의 자원협력 확대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 ‘에너지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 에너지 전략 수행을 위한 법적 토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인도 유전 개·보수 공사, 베트남 신도시 개발 등 우리 기업의 플랜트 및 건설 수주를 효율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으며, 특히 우리 기업이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이 되고 있는 중장기 금융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 체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는 IT 분야의 진출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통관, 인·허가, 비자 문제 등 해외에 진출해 있는 기업이 공통적으로 겪는 애로에 대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더욱 긴밀히 협의해서 풀어 나가겠습니다.

이번 순방은 우리나라와 기업들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 휴대전화, TV, 에어컨, 자동차가 시장점유율 1,2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기업이 너무 잘해서 혹시 미움이나 받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제가 국가를 대표해서 4강 순방의 마무리로 러시아를 가고 브릭스 경제외교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인도를 방문했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은 우리의 상품이었습니다. 세계를 상대로 뛰고 있는 우리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열정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지도자들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동력이 무엇인가? 저는 자신 있게 ‘바로 우리 국민’ 이라고 답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열정과 능력, 그리고 높은 교육열이 그러한 성공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 기업이 투자한 봉제공장을 방문했을 때 수백명의 여성 근로자들을 보고 과거 1970년대 주경야독하며 가정을 책임졌던 우리 여성 근로자들이 떠올랐습니다. 또 그들에게 우리 개발시대의 여성 근로자들의 땀과 눈물의 경험을 얘기했을 때 그들이 흘리던 눈물에서 베트남의 희망과 미래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밖에서 본 한국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것인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와 정부는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인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기술혁신과 인재양성, 시장 시스템 개혁, 노사관계 안정, 성장동력 산업 육성 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수침체의 장기화와 경제구조의 양극화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신용카드 문제 등으로 빚어진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투기가 난무하던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가는 가운데 내수를 살리기 위한 재정·세제·금융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합리적인 경기 활성화 노력을 지속하면서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 활성화, 서비스 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교육시설과 보육사업 등 미래사회에 대비한 공공부문의 건설사업을 앞당겨 투자함으로써 건설경기의 연착륙을 지원하고 침체된 내수를 활성화할 계획입

니다.

비록 시간이 걸리지만 오늘보다는 내일,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서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입니다. 정부의 의지가 있고, 확고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계가 부러워하고 평가하는 민주주의와 경제적 성취 만큼이나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방문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더욱 다지게 되었습니다. 당장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림 없는 원칙과 일관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시사저널 창간 15주년을 거듭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